

보도시점 2024. 10. 21.(월) 09:00 배포 2024. 10. 21.(월) 08:30

특허청, KBO와 손잡고 가을야구 '짜통 아웃 정품 오케이' 추진

- 특허청, KBO 한국시리즈 기간 위조상품 근절 위한 특별 단속 실시 -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2024 KBO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24.10.21.~29.) 경기장 주변에서 야구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관중수는 2024 KBO 정규시즌 기준으로 1,088만 명을 돌파하며, KBO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처럼 높은 인기에 더불어 야구 용품과 팬상품(굿즈) 등의 위조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KBO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KBO 및 각 구단의 상표권을 침해한 건수는 1,110 건이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이미 1,308건에 달해 작년 침해건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 9월 KBO로부터 야구 관련 위조상품 점검(모니터링) 및 단속 등의 요청을 받고,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에서 야구 용품과 굿즈 등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시리즈를 기회 삼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을 사전에 적발하고,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 및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외에도, 야구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캠페인)도 실시한다. 경기장 내외에서 정품 구매를 촉진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MLB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24.3.20.~21.)'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 요청을 받고 온·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단속과 홍보활동(캠페인)을 벌였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MLB로부터 '지식재산 보호활동' 공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인기 있는 스포츠 행사(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위조상품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ippolice.go.kr)’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 붙임 1. KBO 야구용품 및 굿즈 사진

2.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사진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959)
		담당자	서기관	이동훈 (042-481-8315)
			사무관	박진웅 (042-481-8277)

붙임1

KBO 야구용품 및 굿즈 사진

▼ KBO리그 공식 온라인 쇼핑몰(KBO 마켓)에서 판매중인 야구 용품 및 굿즈(출처: KBO마켓)



붙임2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사진

- ▼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 2월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 단속해 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 현장을 적발하고 지난 3월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가 열린 고척스카이돔(서울 구로구) 경기장 일원에서 현장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전시되었던 상표 침해 상품



전시되었던 상표 침해 상품



전시되었던 상표 침해 상품



전시되었던 상표 침해 상품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모습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모습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모습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모습